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연구

공수연(인하대 박사과정) · 양성은(인하대 부교수)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농어촌 생활 기피 등에 대한 일련의 사회현상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인들을 유입시켰다. 다국적 출신의 인구유입은 다문화가족을 파생시켰고,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0년대 후반 초기 다문화가족 생성기와 근 20년이 지난 지금의 다문화가족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주여성화의 특성을 지니며, 적응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을 둘러싼 진로, 직업탐색, 취·창업 방안 등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해 취업준비 경험, 가치관, 신념,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에 대해 과정중심(process-oriented)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직후 구직활동중인 15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선정하였다. 개별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접 외 본국에서의 직장경험,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희망취업분야, 희망연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도 부가적 자료 조사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양해, 목적설명, 동의서 등의 윤리규정을 따랐으며,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라포를 형성하고, 관찰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1회시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필요한 경우 2차 면접도 실시하였다. 각각의 면접은 녹음되었고, 모두 전사하였다. 분석은 최종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Lichtman(2006, 167-170)이 제안한 3개(three C's of data analysis: Codes, Categories, Concepts)의 분석법을 자료에 맞게 변용하여 4단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취업의 동기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일상은 한국에서의 빠른 적응과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일명 “스펙 쌓기”에 집중한다. 이들은 국가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미취업 요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 미취업에 대한 귀인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고, 노력이나 운과 같은 불안정한 요소가 원인이라 생각하는 반면, 사회구조적으로는 한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수용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인정”의 욕구를 드러내었으며, 10년 후 “완전동화”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지원 방안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정보를 제공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방안은 저출산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의 대처전략으로서가 아닌 이들의 흥미, 욕구, 능력 등을 바탕으로 취업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